

미지의 땅에서 진귀한 유물들이 전해주는 삶에 대한 울림

“고고학만큼 역설적인 학문이 없다. 왜냐하면 과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유적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고고학자들이 수많은 도면과 사진을 남기며 신중하게 발굴을 진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번 발굴한 유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다. 간혹 유적을 발굴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땅속에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유적을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작정 발굴을 하지 않는 것도 답이 아니다. 발굴을 하지 않으면 정작 과거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에 오히려 고고학의 발전은 저해된다.”(본문 중에서)



강인욱 지음

땅에서 들려오는 삶에 대한 울림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진 현장 고고학자”라는 유희준 교수의 추천처럼 그는 그동안 러시아, 시베리아, 몽골, 중앙아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굴을 주도할 만큼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책에는 1990년대 벌교 조개무지에서부터 발해 성터에서 발견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갈색토기까지 다양한 발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그뿐 아니라 시베리아 옴부덤에서 발굴한 이름 없는 유해와 카자흐스탄의 황금인간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

전편에 걸친 고고학에 대한 저자의 시각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라는 다리’라는 데 방점이 놓여 있다. 과거의 보물창고가 아닌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



사막을 헤엄치는 배 모양의 관들로 이루어진 실크로드 사오허 무덤 전경.

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최초 고고학적 활동을 한 때는 언제였을까. 저자는 터키에 소재한 8000년 전 것으로 알려진 차탈 후유크(또는 차탈 회익) 유적이라고 설명한다.

“차탈 후유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실적인 회화, 천장을 통한 출입 흔적, 집 안에 두는 무덤 벽화, 화덕 등이 발굴되었다. 이들은 근동 지역의 ‘데페’라는 곳에서 특이한 마

음을 이루는 형태로 발견되었다.” 또한 저자는 고고학 자료의 절반은 무덤과 관련돼 있다고 본다. 내안데르탈인 이래로 인류는 망자의 영생을 바라거나 저 세상에서의 행복을 희원하며 시신을 안치

했다. 무덤은 곧 ‘죽은 사람들을 위해 산자가 남긴 마지막 사랑’인 셈이다.

책에 등장하는 주요 사건들 또한 흥미롭다. 5만년 전 테니스바 동굴에서 발견된 인류 화석, 9000년 전 자후 유적에서 나온 중국 최초의 막걸리, 4000년 전 실크로드의 사오허 무덤과 만주 사자텐하중문화에서 나온 석경과 구름 등도 상상과 오감을 자극한다.

아울러 저자는 고고학을 매개로 역사와 예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경계를 넘나든다. 단순히 유물의 진위 여부를 가리거나 연대를 밝히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곧 인류의 정체성을 시시때때로 확인하게 하는 단초로 작용한다.

책 전반에 걸쳐 깔려 있는 주제는 ‘역사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이 쌓인 지층과도 같다’이다. 유물은 과거를 비추면서 현재를 비추며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는 속담이 있다. 고고학도 그러하다. 과거의 유적이 파괴되어 우리에게 그 속살을 보여 줄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인들의 모습을 알게 된다”며 “하지만 그 상처를 당연시 하고 발굴에만 급급하게 된다면 후대에 물려줄 유물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흐름출판·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탈출기 최서해 외 지음

김기진, 박영희, 최서해, 조병희, 이기영, 한설야, 윤기정, 김남천, 백신애, 지하연...

중고교 시절 누구나 문학시간에 한번쯤 ‘카프’라는 명칭을 들었을 것이다. 카프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을 의미하며, 앞서 열거한 이들은 카프 작가들이다.

대개 ‘카프’ 하면 ‘일제강점기 시대 사회주의 문학단체’ 또는 ‘대부분이 살인과 방화로 끝나는 작품’ 등을 떠올린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관념적이고 정치적 목적성이 짙어 그 작품 수준은 높지 않다’ 정도로 인식한다. 그러나 실제 읽어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국 근현대문학의 ‘잃어버린 파편’으로 인식돼 왔던 ‘카프’의 작품을 선집으로 엮은 책이 출간됐다. 대표 작가인 최서해 등 모두 12명의 20개 작품이 수록된 ‘탈출기’는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한 방편이자 당대 하층민의 삶을 보여준다.

표제작 ‘탈출기’는 최서해의 대표작으로 일제 강점기 하층민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무엇보다 작가의 체험이 녹아 있어 예사롭지 않다.

“나는 여태까지 세상에 대하여 충실하였다. 어디까지든지 충실하려고 하였다. 내 어머니, 내 아내까지도 빼가 부서지고 고기가 찢기더라도 충실한 노력으로 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충실을 받지 않았다. 도리어 충실한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다... 감군!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책은 ‘백년 동안의 금기, 백년 동안의 오해’였던 카프문학을 가능할 수 있는 작품들로 꾸려졌다. 해방 이후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을 집작해 하는 작품도 수록돼 당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새움·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장석주 지음

오늘의 시대를 ‘소확행’ 시대라고 한다. 사람들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한다. 거창하거나 공허한 행복이 아닌 손에 쥐고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훨씬 현실적이다.

장석주 시인은 자신을 ‘문장 노동자’라고 한다. 스무 살에 문단에 나온 이후 출판 기획 편집, 강의, 방송 진행 등으로 생계를 꾸렸고 지금은 전업작가로 책을 쓰고 강연을 하며 지낸다. 이번이 그가 펴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행복은 작고 단순한 것에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나는 여름의 빛과 그늘을, 여름의 황혼을, 여름의 자두와 복숭아를, 여름의 센터멘털을, 여름의 무상급식을, 여름의 우연한 만남과 흑맥주를, 여름의 크레타 여행을, 여름의 키스를 다 좋아한다. 걱정하지 말게, 벗이여. 지금 동네 뒷밭에 옥수수도, 해바라기도, 토마토도, 호박 냉쿨도, 고구마도 잘 자라나네. 녹음과 그들은 우리를 위한 것, 잘 자라는 건 눈물이 날 만큼 다 고맙다.”

그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일상적인 행동을 아우른다. 그런 연유로 ‘행복의 기술’을 찾아 실행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다. 침묵하기, 걷기, 혼자 시간 보내기, 단순하게 살기, 비우기, 종이책 읽기 등으로 저자는 그러한 것들에 자신의 사유를 펼쳐 놓는다.

특히 저자는 계절의 변화에 예민한 감각을 품고 산다. 계절을 잘 아는 것은 곧 행복해지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연이 만들어낸 소리와 냄새, 모양과 색깔, 질감과 온도 그 모든 것에 오감을 연다. 계절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소소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는 지론이다.

〈올유문화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중의 시대 보통의 건축 서운영 지음

도서관, 커피숍, 호텔, 은행. 현대인들이 일상처럼 활용하는 이 공간들은 200년 전만 해도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부유한 소수 귀족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귀족 문화’의 공간이었던 것. 이들이 대중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한 과정의 중심에는 17~18세기 신봉종산층 ‘젠트리’, 부유 소상공인 ‘부르주아’가 있었다.

‘건축, 권력과 욕망을 말한다’, ‘내게 금지된 공간 내가 소망한 공간’ 등 15년간 공간·건축에 대한 책을 출간한 건축칼럼니스트 서운영 작가가 대중문화가 된 귀족문화를 건축물 중심으로 알아보는 책 ‘대중의 시대 보통의 건축’을 펴냈다.

책은 8개 장에 걸쳐 젠트리-부르주아가 현대 우리의 모습과 건축을 결정짓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1장에서 부르주아와 젠트리가 누구인지와 등장 배경을 짚어본다. 2장은 르네상스 시대 거상 가문에서 시작된 은행이 명예혁명을 거쳐 국책은행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풀어내고, 3장은 프랑스 절대왕정 시대 궁정문화를 모방한 귀족 계층의 ‘살롱 문화’, 이를 모방한 젠트리-부르주아에 의해 ‘클럽’, ‘카페’가 생겨난 과정을 짚는다.

4장은 프랑스 궁정의 미식 문화가 부르주아에게 전해져 생겨난 레스토랑, 5장은 오페라-오페레타-뮤지컬-영화로 이어지는 극장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밖에도 대학이 가진 엘리트 교육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실용교육을 전파한 전문학교와 기술학교, 산업혁명 이후 철도-자동차의 보급으로 대중화된 교외 단독주택, 민중의 죽음을 기억의 대상에 편입시킨 프랑스 국립묘지 ‘판테옹’ 등 공간들의 역사를 알아본다.

〈구리·1만8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서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